

# 신품종 적색종 용과 인공수분 시간대 및 적정 착과량

## □ 적색종 용과란 ?

- 과실의 껍질이 용의 비늘과 비슷하다는 용과(龍果)는 선인장 종류의 열매이며, 과육색이 붉은 적색종 용과는 제주에서 7월부터 9월 하순까지 주기적으로 개화가 나타남
- 용과 과피 외부의 비늘 모양 구조를 ‘포’ 라고 부르며, 포 부분이 70% 이상 적색으로 변했을 때가 수확적기 임. 꽃이 개화 후 수확까지 여름에는 35~40일, 여름보다 온도가 낮은 늦가을에는 40~50일 정도 소요됨

## □ 인공수분은 언제, 어떻게 ?

- 적색종 용과를 자연수분하면 수정 불량 및 과실 크기가 작아져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과실을 생산하기 위하여 인공수분을 해야함
- 인공수분은 꽃봉오리를 직접 흔들거나 붓을 이용해 수술의 화분을 암술부위에 문질러줌
- 용과의 꽃은 오후 7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개화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시간이 짧고, 아침과 저녁 인공수분 시 착과율, 과실품질(과실크기, 과중, 당도, 산함량) 및 수량에는 차이가 없음



적색종 용과 인공수분 모습

## □ 용과 적정 착과량은 ?

- 주지에서 유인되어 발생한 새로운 줄기를 ‘결과지’ 라고 부르며, 결과지당 과실이 1과, 2과, 3과 착과 시 착과량(과중) 및 과실품질(과실크기, 당도, 산함량)에는 차이가 없음
- 결과지당 다량의 꽃 착화시 양분 경합으로 낙화 될 우려가 있고, 결과지당 3과 착과 발생률이 낮아 전체 수량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착과 수는 결과지 당 1~2과가 효율적임